

지구촌 사람들의 행복한 마을회관 - 국제노동기구(ILO) 페루사무소

- 이름 : 천진우
- 근무기구 및 부서: 국제노동기구 중남미 지역본부 페루사무소 이민 부서
(ILO Regional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직위: 인턴
- 지원 경로: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인턴 프로그램
- 근무 기간: 2016.8.29.~2017.2.28.

Part 1. 꿈을 좇는 사람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겠네...” 이 노래는 1970년 발표된 이수인 작곡, 윤석중 작사의 “앞으로” 라는 동요이다. 아마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는 가사에 별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멜로디만 흥얼거리며 부르곤 했다. 하지만 이후, “이민” 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가사를 곱씹어보니 따뜻한 지구촌 공동체를 바랬던 염원이 담긴 곡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ILO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민자 수는 2억 3천만 명, 그 중 이민 노동자 수는 1억 5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찾아 먼 여정을 떠나고 있다. 나는 2010년, 세상의 반대편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이민 노동”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미국으로 떠났다. 이유를 정의할 수는 없었으나 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영어를 공부하며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공항에 첫 발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Bienvenida! Jinwoo!”

“유창한 영어” 의 꿈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내가 정착하게 된 곳은 Mabton 이라는 작은 이민자 마을로, 히스패닉 인구가 전체의 97% 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농업 또는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더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한 꿈을 좇아 미국으로 모험을 떠나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Mabton에서 1년간 생활하며 “중남미 이민자” 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 기간은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와 생활하게 된 호스트 가족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들어오는 강행군을 견디며 최저임금을 받아 겨우 생활하기에 바빴다. 학교 친구들은 경찰을 피해 도망치기도 하고, 영어를 하지 못해 미국 내에서 인종 차별을 받을 때가 많았다. 동등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화가 났다.

이 경험을 계기로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관련 국제기구에 입사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살면서 가지게 된 첫 꿈이었다.

Part 2. 꿈을 좇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준비”와 “도전”이다. 준비된 자가 도전 할 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학사 진학 후, 관련 분야를 함께 준비하던 선배의 추천으로 외교부 중남미 파견인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언어와 중남미 정치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1년간 공부하였고, 그 이외에도 중남미 신문기사 스터디를 하며 “첫 국제기구 진출” 준비를 시작하였다.

운이 좋게도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과하여, 2016년 8월 29일자로 국제노동기구(ILO) 중남미 지역본부 페루사무소 이민 노동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ILO는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사회 보장, 인권 보호, 이민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는 부서 전문가(Specialist)인 Guillermo 의 직속 인턴으로 배정되어, 6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Part 2.1 제네바 본부와의 협업 -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민 노동부서(Labour Migration) 소속 인턴으로써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프로젝트는 제네바 본부와 협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다. 중남미 지역본부에 이민 부서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의 통계청 사이트 정보가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태 파악이 어려워 통계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ILO는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초부터 <파나마 사무소 통계센터 - 중남미 지역본부 - 제네바 본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는 부서 배치 2주차부터 본 프로젝트의 일을 하나씩 배워 나갔다.

본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파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World Bank, ECLAC(Economic Committe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E(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등의 사이트에서 월간, 연간 리포트를 참조해 직접 리소스를 찾기도 하였다.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NGO, 국가 기관 및 연구소의 보고서를 읽고, 요약하여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Guillermo는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 일을 처음 시작 했을 때에는, 단순히 자료 정리만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통계 데이터를 찾아내는 “리서치 능력”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중남미 이민자 통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토론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참관하고, 제네바 통계분석 팀과의 회의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넘겨받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로 내 던지는 첫 발걸음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열심히 준비하여 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재 본 프로젝트는 제네바 본부와 중남미 사무소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도출된 13개국 이외에 카리브 및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설문 조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uillermo는 나의 후임 인턴 및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자문관들과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Part 2.2 중남미 지역본부 - 웹 플랫폼 설계

두 번째는 ILO 지역본부가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민 부서만의 Geo-Referencing(지오 레퍼런싱 - 지리참조적) 웹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Guillermo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통계 자료를 활용 할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중 하나가 웹 플랫폼 프로젝트이다.

우선, 중남미의 각 나라들의 지도 그래픽을 법 체계(Legal Framework), 이민자 프로필(Profile of Migrants), 이주 경로(Migration corridors), 노동 시장(Labor Market), 노동 환경(Labor Condition), 불규칙성(Irregularity), 시행 예시(Examples of practice),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의 파트로 나누어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파나마 사무소와 제네바 본부로부터 전해받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3주간 각 나라의 “이민자 실태 보고서” 를 작성하는 일에 집중했다. 위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며 리서치의 기초를 배워 나갔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방법 또한 알게 되어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IOM 자문관, ILO 파나마 사무소장과 Guillermo 앞에서 초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사실 자문관들 앞에서 내가 해 온 것을 보고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

담이 컸지만, 전 날 밤까지 발표문과 보고서를 수정하고 연습한 끝에 첫 보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민 부서의 컨설턴트가 이어서 작업하고 있으며, 올 9월 멕시코에서 열린 ILO 이민부서 회의에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인턴 종료 이후 Guillermo에게 문의해 본 바, 현재 다른 ILO 사무소들과 논의 중이며 그래픽과 웹 에디팅 작업이 끝나는 대로 ILO 중남미 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한다. 개제된 웹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민 관련 회의나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이민이라는 테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art 3. 꿈을 이루기 위해

위의 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문성과 언어의 벽에 부딪힐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 인턴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석사 과정 중에 인턴십을 수료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나는 아직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스페인어와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일념 하나로 꾸준히 공부해왔지만, 외국어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더 큰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 보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수 십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고 이민 동향을 파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려운 용어들과 보고서 앞뒤로 적힌 단어 리스트를 보면서 우울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에 온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과거의 꿈 많던 나를 회상해 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차별 없는 지구촌이 되길 원했다. 지금의 이 과정 또한 미래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시작했다. 꾸준히 보고서를 읽고 공부를 해 나갈수록 일 처리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외국어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아침에 눈도 뜨지 않은 채 라디오를 켜던 습관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여담이지만 새로 배정 받아온 컨설턴트가 “부모님 한 분이 페루사람인줄 알았다. 그 정도로 스페인어가 완벽하다”고 말해 사무실 내에 모든 직원들이 다 웃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Part 4. 국제기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들에게

첫 번째로, 꿈과 신념이 확고하다면 때로는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사실 본 프로그램 지원에 앞서 내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을 던졌었다. 내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세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기회를 꼭 잡겠다는 도전의식으로 준비했다.
그 결과 나는 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외국어 구사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필수 조건이다. 국제 사회를 위해 일하는 만
큼,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언어 또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LO 중남미 지역본부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의 업무 비중이 20:80 정도이
다. 제네바 본부와 함께 작업할 경우에는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스페인어
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덧붙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
견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기구 진출을 원한다면 외국어로 발표나 회의, 혹은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을 생활화 하는 것을 추천 한다. 나 또한 매일매일 외교부 홈페
이지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체크하고,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가입
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국제기구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기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져 활발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본 수기를 마친다. /끝/.

< 별첨 >



< 유엔 만찬 >



< 회의 피드백 - IOM, ILO 자문관과 >



< ILO 출근 마지막 날 >



< ILO 입구 앞에서 >